

〈설명절 가족연합예배〉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7.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혼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1-6).

*신양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430장

대표기도 / (1부) 박영미 전도사 (2부) 이상혁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시편 128:1~6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씀 / “복 있는 가정” / 전종남 목사
(A Blessed Family)

찬 송 / 301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설명절 가정예배〉

■ 가정 예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가족중 인도자

찬 송 / 8장, 288장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히브리서 12:14~17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거룩함을 잊지 말라.” / 가족중 인도자

(Do Not Forsake Holiness.) ★우측에 설교예시 ↪

〈설명절 가정예배〉

■ 저녁 7시

인도: 가족중 인도자

찬 송 / 449장, 545장

성경봉독 / 요한복음 2:1~11

말 씀 /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라.” / 가족중 인도자

(Do Whatever the Lord Tells You.) ★예배순서 별지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이사야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윤성태 장로	윤결태 장로	최영종 안수집사

예배 위원

2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이대기 박선진 남정옥
현금	김신영	최승태 김영덕B 유경순 이영희

현금자 명단 (온라인 현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은립 김정순 김춘예 남정옥 노순걸 문미경 양락석(우말순) 연윤희 윤태향 정규식(이석란) 최진오(김숙자) 최차순 황하연 20여
감사현금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선정 김순천(연윤희) 김영화 김형문(신승희) 남정옥 문상필 박제우(임윤자) 심상현 양락석(우말순) 엄상희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강래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진오(김숙자) 한희숙 흥우표(윤명란) 무명1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선교현금	전종남(최경애) 김복례권사자녀 김순천(연윤희) 김순천(연윤희)-례구2 김영덕B 남정옥 유병용(황하연)
구제현금	전종남(최경애) 김성학(류윤영) 김영덕B 김형문(신승희) 문미경
교육현금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순천(연윤희) 김영덕B 김정순 문미경 정규식(이석란) 최차순 *구역•부서: 유초-중고

주일오후 가정예배 설교예시 (2.15.)

“거룩함을 잊지 말라.” (히12:14~17)

할렐루야. 설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주일 오후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레11:45). ‘거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쉬’입니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잊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화평과 거룩함을 따릅시다(14절).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삶은, 단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등을 즐기거나 마음을 키우는 삶이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2.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집시다(15절).

본문 15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행여나 공동체 내에서 작은 쓴 뿌리가 자라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잘 살펴서, 마음의 상처와 죄의 씨앗이 틈타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에서와 같은 맹렬된 행동을 경계합시다(16~17절).

성경은 에서를 예로 들며 경고합니다. 에서는 팔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버렸고, 결국 돌아갈 수 없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그런 에서를 맹렬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는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